2021년 8월호 VOL. 4

모아보나

MOAMOM MONTHLY MAGAZINEe

PART 1
초록빛 바다물에 흑룡 어린이집

PART 2
창의모아3악장 누리뜰 어린이집

PART 3
MORE & 모어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

PART 4
뻔한 여행 말고 FUN 한 여행

모아맘의 행복을 전해주는 MOABONA

초록빛 바닷물에

해병대 6여단

흑룡 어린이집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가 만들어진 곳, 백령도

대한민국 서북단 백령도에 모아맘 어린이집이 있다?!

흑룡 어린이집의 다양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흑룡 어린이집

"해병대 흑룡 어린이집"은 동화 '심청전' 속 인당수의 유래를 지닌 서해 최북단 백령도라는 섬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정도 달려오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마을의 풍경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백령도라는 섬은 브레이브걸스 "롤린" 역주행의 원동력이 되어준 주역들과 한 TV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던 김종국 냉면으로 불리는 "사곶냉면"으로 더 유명한 곳이랍니다. 백령도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까요?

해병대 6여단 소속의 직장어린이집인 해병대 흑룡 어린이집은 지역의 유일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현재 34명의 영유아들과 10명의 교직원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서해 최북단이자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는 백령 도서군의 특성상 육·해·공군이 모두 모여 있으며, 해병대 뿐 아니라 육·해·공군 군 가족이 모두 입소할 수 있는 것이 흑룡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 해병대 6여단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열정, 학부모님의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 의미가 깊은 어린이집이라 소개하고 싶네요.

초록빛 바닷물에

흑룡 어린이집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경험을 가졌었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군인'이라는 부모님의 직업이 생소하지만,
해병대 6여단 역사박물관 견학을 통해 부모 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와 훈련받는 모습, 탱크, 총,
그리고 흑룡 어린이집의 개원 모습을 역사박물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산책길 자주 보았던 헬리콥터를 항공 부대에 방문하여 직접 보고,
라는 경험을 하며 무척 신이 났던 아이들이었어요.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견학하며 부모님의 직업과 일의 다양성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경험 뒤 일터에서 직접 만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부모님의 멋진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커서 군인이 되겠다 꿈을 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에 미소가 그려졌답니다.

흑룡 어린이집 원장님이 소개하는

백령도 여행지 BEST 4

BEST 1. 천안함 위령탑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처음 마주하는 위령탑의 위엄에서 느껴지는
숙연함은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특히 추모 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며
그 당시 상황들의 긴박함과 응답 없는 동료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에요.

BEST 2. 두무진

길게 늘어선 바위들이 마치 무성하게 자란 풀처럼 보여 바위들이 풀갈이 솟아있다는 의미로
두모진(頭毛鎭)이라 부르게 되었고, 용맹한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모양이라는 뜻의
두무진(頭武津) 명칭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고 해요. 두무진에서 바라보면 인당수와
북한의 장산곶이 한 눈에 들어오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노을 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BEST 3. 심청각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는 심청전 중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던진 인당수와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를 기리기 위해 인당수와 연봉바위가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심청각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함과 아울러 '효'사상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청각에 가면 심청이의 동상과 심청전에 관련된 판소리, 영화대본, 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BEST 4. 용트림 바위

천연기념물 제507호 흡사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도 용트림 바위인 이곳은 이름만큼이나 아주 독특하게 기암으로 바다 가운데에 버티고 서있답니다.
이곳은 흑룡 어린이집 친구들에게는 아주 친밀감이 있는 곳으로
괭이갈매기들이 5월 산란기가 되면 이곳에 알을 낳는 멋진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흑룡 어린이집 원장님이 소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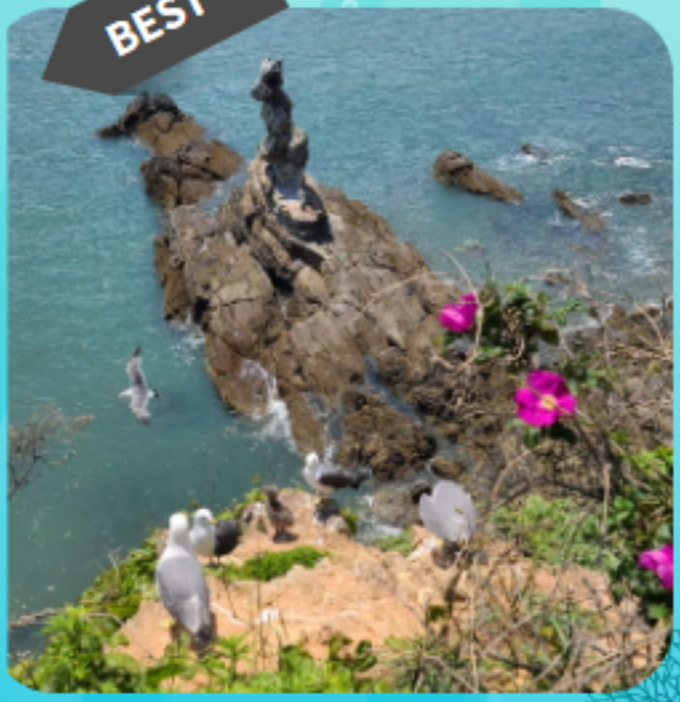
백령도 여행지 BEST 4

BEST 1

BEST 3

BEST 2

BEST 4



놀이하는 모아맘

창의모아 3악장

누리뜰 어린이집 : 김주현 원장님

Q1.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세요.

누리뜰 어린이집은 세종 국책연구단지의 임직원 자녀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나아가 직장에서 마음 놓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자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누리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비전 하에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뿐만 아니라 생태문화적 접근에서 부모, 교직원, 국책연구단지가 함께 세워가는 열린 보육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소통 속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전국직장어린이집 공간 디자인 우수상(2015년), 우수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상으로는 안전공제회 (2017, 2019), 한국보육진흥원(2018), 한국 어린이집 연합회(2019),
코로나 19 활동사례 공모전 최우수상(한국보육진흥원, 2020), 전국 직장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상(2020) 등 질 높은 보육의 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누리뜰 어린이집은 2015년 개원 이후 지난 6년여 동안 교직원이 10여명 넘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며 교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불임으로 고민하던 교직원도 누리뜰에서 근무하면 소망하던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누리뜰의 역사입니다. 별칭으로 '다산의 어린이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참 복된 일이지요^^, 이로 인해 원장인 저는 매년 개원하는 느낌이 들지만 보람된 일이지요~).

Q2. 작년에 이어 2년째 스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스텀활동을 진행하며 스텀활동을 대하는 유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아들이 탕커링 활동을 통해 과학 관련 재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가지며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며, 높아진 창의 활동의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텀활동을 처음 접했을 때엔 교사와 유아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및 문제점 발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고, 유아들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창의적 태도를 스텀으로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 및 불편함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스텀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력 태도가 증진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Q3.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성장 모습은 어떨까요?

개정누리과정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스텀활동을 진행할 때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아 유아들의 지원방법, 개입의 정도, 탐구적 발문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원장님과도 함께 공유하며 스텀관련 도서, 논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스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스텀 활동에 집중하여 유아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텀 컨설팅을 통해 스텀 활동의 확장과 현장에서 진행에 있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마련되어 유아들이 다양한 재료를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교사들도 여러 종류의 과학적 재료(신소재 재료)를 접하게 되며 스텀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텀활동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정답이나 한정된 재료를 정해놓고 지도하는 것이 아닌 유아들과 함께 탐구합니다. 또한, 활동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아들과 함께 내려놓고, 문제해결 태도 및 창의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놀이지원자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이 현재진행형입니다.

놀이하는 모아맘

창의모아 3악장

누리뜰 어린이집 : 김주현 원장님

Q4. *올해 스팀을 시작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께 조언해줄 수 있는 원장님의 지원방향 tip이 있을까요?*

발현적 아동중심의 스팀 프로그램을 시도할 때 선생님들은 마치 나침반을 갖고 지도를 그려가며 길을 떠나는 기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하게 만나는 상황 속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탐색하는 과정처럼 선생님들에게도 정답을 찾기보다 마음껏 시도하고 결과 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길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마치 예상치 않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 자체를 즐기듯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의 부담을 전환하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 할 때마다 격려하며 편하게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노력한 것이 선생님들의 자율성과 몰입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김주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놀이하는 모아맘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ORE & 모애

점점 더 알아가는 모아맘 어린이집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

Q1.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2021년 3월부터 모아맘보육재단이 변경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 원장 윤선혜입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오게 되는 경험은 쉽지 않는 일이고, 제가 근무하던 어린이집보다 규모도 커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단과 위탁사(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변경 위탁 준비과정부터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함께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재단 변경에도 동요 없이 함께 해주어서 저의 빠른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여기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 아닌가 가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모아맘보육재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요. 원장도 때때로 외롭습니다. 그럴 때 원 운영을 함께 하며 고민거리가 있으면 빠르고 신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업무적·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Q2.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 인가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은 현재 46명의 영유아들이 4개 반으로 교직원은 15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놀이터, 교실, 교구재 등등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다른 어린이집과 확연한 차별 점은 단연코 주변 환경입니다.
어린이집이 올림픽공원이라는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계절을 직접 나가서 느끼고, 뛰고, 탐색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아이들 역시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7세반은 공원 둘레로 4KM 정도 되는 거리도 거뜬히 걸어 다닌답니다. 처음에 아이들과 산책 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담임선생님이 선두에서 뛰면 아이들이 정말 잘 뛰어서 산과 언덕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고, 헉헉거리며 후미에 쳐져 있는 저에게 '원장 선생님, 빨리 오세요!' 라고 손짓하던 날 전 이미 오전에 만보를 걷게 되었습니다ㅠㅠ 다음날 아이들이 산책 가며 '원장선생님, 오늘도 같이 나가요!'라고 제안하였지만, '응? 으~응.... 다음에 가자.'라고 슬며시 저도 모르게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흐흐 빨리 체력을 길러서 함께 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MORE & 모애

점점 더 알아가는 모아맘 어린이집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

Q3. 앞으로 어떤 어린이집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가며 관심과 흥미로 몰입하며 놀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어린이집의 첫 부모오리엔테이션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재단과 원장에 궁금해 하실 부모님들과 만날 첫 만남....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지 참으로 오랜 시간 고민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많은 것들을 잃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있었다면, 금년은 어린이집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이것을 이야기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어린이집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질의 놀이 환경 제공하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운영 중입니다. 또한 모아맘 스텀 교육과정을 교사들과 연구하고, 얼마 전부터는 우리들만의 멋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만들었어요. 아직 첫 걸음이지만 재단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아이들과 경험해보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재단의 스텀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도 결과는 나중에 재단을 통해 사례 공유 한다면 또 다른 선순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MORE & 모애

점점 더 알아가는 모아맘 어린이집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

HD
4K

REC

FUN경·력 실천 프로그램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3...2...1... ...1...2...3

편집팀의 예상을 뛰어넘는 톡톡 튀는 FUN한 여행을 보내주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여행 아이디어로 수상의 기쁨을 가진
3분의 선생님 중 2분의 FUN한 여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언택트에 F를 더한 FUNtact

서울 청사 햇살 어린이집 김호연 선생님

매일 반복되는 하루일과 속 모아보나 이벤트에 참여하다!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청사 햇살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벌써 11년 차에 접어든다. 장마와 폭염이 일찍 찾아온 2021년 6월의 어느 날, 여름 날씨에 지쳐갈 무렵 모아보나 이벤트에 참여하며 비대면 시대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두둥— 아가들 낮잠을 재우고 잠시 두 팔을 펴는 찰나, '주임 선생님을 애타게 찾는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주임 선생님 모아보나 이벤트 당첨됐대요!"

이벤트 당첨 소식 덕분에 마스크 너머로 미소가 번진다. 와~우, 통장으로 입금된 여행지원금 10만원.

기분이가 좋구나!

'세상 아름다운 여행지'로 불리며 맑은 행복을 자랑하는 양평으로 가자!

결혼 전후, 시간이 날 때마다 힐링 장소로 방문하곤 했던 양평, 가족과의 추억이 많은 곳이기에 양평에서의 FUN한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부릉부릉— 에어컨 빵빵한 차에 올라타 동원 시간에 즐기는 드라이브의 참맛. 어깨춤이 절로 나는구나! 맑은 하늘, 몽실몽실한 구름을 구경하며 도착한 양평. 사랑 가득 담긴 연꽃으로 가득한 두물머리를 거닐며 인생 사진도 찍고, 핫한 연잎 핫도그도 먹고! 북한강을 앞에 둔 경치를 자랑하는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까지 마시니 눈과 입 모두가 행복한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휴가로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계획 했던 것과 동일 하게 여행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알찬 여행의 시간이었다.

FUN캠핑 실천 프로그램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든든한 모아맘보육재단의 지원을 받는 나는야, 자랑스러운 보육교사!

모아맘보육재단으로부터의 여행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의 개념을 넘어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 근무해온 내게 일종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보육교사의 업무가 주는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준 고마운 모아맘보육재단.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품이 이런 느낌일까? 지금 내가 느낀 이 따뜻한 느낌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전해주는 자랑스러운 교사가 되어보자고 새로이 다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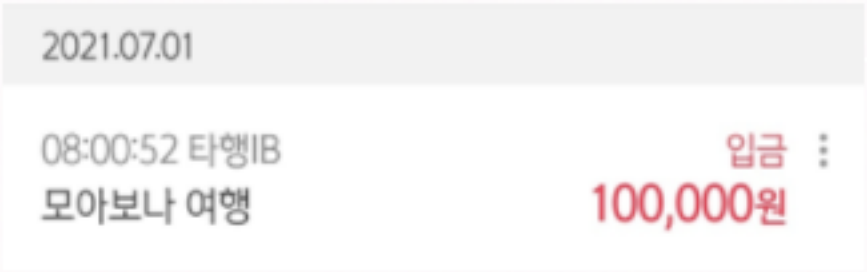
FUN캠핑 실천 프로그램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숲아, FUN하게 놀자

구립 하늘마음어린이집 박은주 선생님

모로 가도 가족과 함께이면 좋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숲코넉 망이 편안해지는 힐링의 시간
보람있게 일한 나! 육아도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FUN한 여행~ 떠나자!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가볼까?

하늘마음어린이집 앞에는 봉제산이 있다. 우리 집 뒤에도 계양산이 있다. 숲을 좋아하는 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는 우리 승민이 승혁이 두 아들과 함께 숲을 자주 찾는다.
이번에는 동두천 자연 휴양림 여름 숲으로 떠나보자!

함께 준비해요! 신나는 여름 숲 여행

아이들과 함께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도시락 통에 싸기 전에 다 먹을 뻔 했지만...
잘 먹고 잘 크는 우리 승 형제에게 고마울 뿐이다. 아빠는 일을 하게 되어 함께 할 수 없어 아쉽다.

FUN캠핑 실천 프로그램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FUN캠핑 실천 프로그램

뻔한 여행 말고 FUN한 여행

꽉 막힌 도시야 안녕!

주말 아침! 도시에는 꽉 막힌 차로 답답한 마음이었다. 2시간 10분을 부릉부릉~ 뒤자석 승형제의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다보니,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산이 눈에 보였다.
거리두기 4단계!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놀자숲은 휴관이었다. ㅠㅠ 전화를 받지 않아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역시나였다. 다행인건 휴양림의 작은 놀이터와 계곡은 이용이 가능했다. 그것도 무료로!

반가워 여름 숲아!

푸르른 하늘과 녹음의 색깔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였다. "엄마! 저기 메뚜기야 저기!" 승혁이가 메뚜기를 보고 살금살금~ 아이고! 놓쳤다. 사진을 못 찍어 너무 아쉽다! 하지만 곤충박사 우리 승혁이는 정말 신이 났다! 울창한 숲을 둬로 하고 아이들은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길에서 아슬아슬 건너는 놀이를 시작하였다. 둘은 서로 먼저 가려고 티격태격 하더니, 어느새 손을 잡고 조심조심 사이좋게 꽃게 걸음을 한다. 귀여운 녀석들!

점심식사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뿐이었다. 근사한 야외 레스토랑에 온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숲에서 먹으니깐 조금 시원한 것 같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아이들이 더워도 마냥 좋은 것 같아 나도 행복했다.

졸졸 계곡 물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물에 풍덩!
물놀이는 계획에 없었는데 놀자숲이 휴관해준 덕분에 더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모자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겠다는 승형제! 시원한 물놀이에 즐거웠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후두둑 후두둑 소나기가 내렸다! 깔깔 거리며 아이들은 비를 신나게 맞았다. 비를 피해 놀이터로 갔다. 작은 터널 안에서 둘은 속닥속닥! 소나기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하나가 더 생겼다.

비가 그치고, 다시 햇빛이 내리 쬐었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꾸며진 놀이터에서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있다며 그네도 타고, 밧줄놀이와 암벽타기를 하며 숲놀이터를 마음껏 즐겼다.

마치 외국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포토존도 있었다. 아이들과 땅도 식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원한 물도 한 모금 마시면서 쉼을 누렸다.
놀자숲 휴관과 소나기 등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한 곳이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보다 훨씬 FUN FUN 하게 놀았던 것 같다!

원조 부대찌개

근처 맛있는 부대찌개 집을 찾아 고고! 출출했던 우리는 원조 부대찌개 집을 찾아갔다. 사람이 많을까봐 이른 저녁 시간에 찾아갔더니 다행히도 우리뿐이었다. 미군 부대가 있고 외국 상점들이 즐비한 신기한 곳이었다.
사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대찌개의 탄생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하였다.

FUN한 우리만의 여름 숲 여행

기차 덕후인 우리 승민이는 동두천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타고 여행했던 기차도 못 타고 아쉬워했었는데 꿈에 그리던 동두천역을 직접 와서는 "엄마 여기 와 줘서 고마워"하고 베시시 웃는다. 아이들이 행복해서 더 좋았던 이번 여름 숲 여행! 여행기를 작성하면서 그때 추억이 떠올라 매우 큰 행복감을 느낀다.

모아맘의 FUN 경영, 내 삶의 쉼표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바쁘게 살았고, 보람은 있었지만 장기간의 쉼표를 주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모아맘 보육재단 보육교사가 된 지 아직 얼마 안되었지만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일도 육아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모아맘 펀경영은 내 삶에 쉼표를 가져다주었다. 아이들은 숲에서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만나고, 그 속에서 많은 지식도 얻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도시 속에서 마스크로 웃음도 가린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숲에서 되찾아 주게 된 여행이었다. 첫 번째 엄마로서 육아도 잘하고, 두 번째 엄마로서 보육도 잘 하는 그런 내가 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모아맘NEWS

창녕 N절' 어린이집 박민주 원장님께서
'2021 보따리 공모전 보육교직원'
부분에서 수상하여
원장님의 이야기가 웹툰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블로그
(m.post.naver.com/childcaremohw)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아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moabona@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www. moamom.co.kr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모아 엄마같이 보육하는, **모아맘보육재단**

모아보나 vol.4
발행인 채혜선 오영석 발행처 모아맘 보육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02-569-5052
모아보나의 모든 내용은 무단 전제, 불법 복제 및 무단배포를 금합니다.